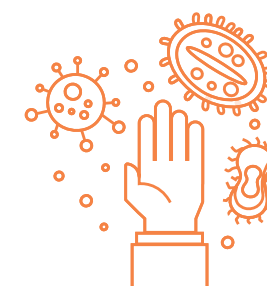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2018 Summer vol.15
Medical Theme
감염관리





contents



Dongguk for you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동행합니다.
Medical Theme ▶ 감염관리

03 Intro 마스크는 배려입니다

Health _ for you

- 04 Good Doctor 미스터리 풀 듯 진단의 묘미 즐기는 '한때 공대 언니'
- 08 See a Doctor 1 대상포진은 왜 무서운가?
- 10 See a Doctor 2 아직도 결핵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
- 12 See a Doctor 3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해야 하나요?
- 14 Checkup 감염병 관리, 예방이 최선입니다!
- 18 Focus 감염에서 안전한 병원을 목표로 뛰는 사람들
- 20 Oriental Medicine 한방과 호흡기 건강관리
- 22 Food Therapy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관리

Life _ for you

24 Travel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특별한 휴가, 양양 & 평창

DUMC _ for you

- 26 Story
- 27 Zoom in Dongguk
- 31 Together

마스크는 배려입니다

오늘도 '나쁨'이네요. 며칠째인지. 벌써부터 숨이 막혀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존 농도부터 확인합니다. 지난 봄 극성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젠 오존이란 녀석이 문 밖에 도사리고 있네요. 마음껏 숨쉬기조차 쉽지 않은 세상. 마스크가 내 건강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어벽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보면 동병상련까지 느껴집니다.

마스크는 불편합니다. 쓰는 사람에게도 보는 사람에게도 그렇지요. 몇 해 전, 외국에서 살다 온 한 지인은 동네 산책에 나섰다가 화들짝 놀랐다고네요. 창이 긴 선캡에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복면' 수준으로 무장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요즘이라면 덜 놀랐을 텐데요. 중동 호흡기중후군(메르스) 때도 마스크는 불편한 필수품이었습니다. 환자로 보일까봐, 내게 옮길까봐. 얼굴을 가린 채 남 눈치 보기 바빴지요.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까요? 육아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고민입니다. '감기쯤이야'란 생각과 '다른 아이들에게 옮기기라도 하면'이란 걱정이 맞서곤 하지요. 맛벌이처럼 어린이집에 못 보내면 난감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모여 생활하는 곳이란 걸 생각하면, 좀 유난스러운 게 낫지 않을까요.

근래 우린 메르스 창궐에 우왕좌왕했었지요. 그 전엔 신종플루라는 공포를 경험했고요. 그러면서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질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노력과 더불어 예방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어요.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우선이지만 그에 못잖게 개개인의 생활수칙 준수도 꼭 필요하지요. 병원균이 내 몸속으로 파고들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만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전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요. 그런 점에서 마스크는 나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한 '배려'입니다. 마스크에 가려 보이지 않는 미소 대신 이젠 눈웃음이라도 나눕시다.

미스터리 풀 듯 진단의 묘미 즐기는 ‘한때 공대 언니’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내과

박 성 연 교수



감염은 어떤 경로를 통해 진행될지 모른다.

면역력이 좋다면 아무 문제없이 지나갈 감염도 면역력이 저하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증상은 있으나 원인을 모를 때 의사들도 답답한 노릇이다.

이럴 때 의심질환을 예측하고 찾아내는 사람들이 감염내과 전문의다.

미국 드라마 ‘하우스’에서 주인공 닥터 하우스는 원인불명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증상을 분석해

족집게처럼 원인을 집어낸다. 닥터 하우스의 전공과목이 감염학과 내과, 신장학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도 닥터 하우스를 꿈꾸는 의사가 있으니 바로 감염내과 박성연 교수다.

병원 감염 감시하는 ‘한때 공대 언니’

박성연 교수는 2011년부터 병원 감염관리 실장을 맡고 있는 감염내과 전문의다.

그는 병원의 감염관리를 하는 병원내의 파수꾼이다. 돌발적인 감염상황이 발생하면 새벽에도 출동한다. 중동지역 여행 후 열나면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그렇다. 작년에도 서너 번 그런 사례가 있었다.

박 교수는 처음부터 의대에 진학했던 학생은 아니었다. 그는 ‘공대 언니’였다. 그러나 기계, 물리, 수학 보다는 생물학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 말하자면, 공대가 적성에 잘 안 맞았다. 그러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됐다. 그때 만났던 의사가 박 교수의 인생향로를 바꿨다.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 의사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는데 큰 위로가 됐어요.”

이 일을 계기로 여대생 박성연은 다시 대입 시험을 보고 의대에 들어갔다.

의대시절에 내과에 매력을 느꼈다. “원인을 찾고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다.”는 그는 “직접 수술하거나 시술하는 것보다, 환자의 증상이나 징후를 통해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았다.”고 한다.

면역저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박 교수는 이런 자신의 ‘취향’을 확인하곤 한다.

몸이 건강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균이 면역이 떨어지면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고양이를 종속주로 하는 기생충인 톡소포자충의 경우 면역이 정상인 사람에서는 아무런 증상을 유발하지 않으나, 면역이 심하게 저하된 사람에서는 뇌염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감염내과의 매력에 대해 설명했다.

“환자를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그는 “환자를 잘 보려면 많이 알아야 한다. 내가 몰라서 환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면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구는 환자를 잘 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박 교수는 “환자를 보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연구한다. 말라리아 연구도 그런 측면에서 했다.”고 말했다. 임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연구 주제로 삼아 연구하면 임상에 도움이 된다. “공부가 참 재미있다.”는 그다.

의사로서 박 교수는 환자가 얘기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염질환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도 들어야 한단다. “환자를 한 명의 사람으로서,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감염질환은 한두 달 피곤감이 있다가 진행되기도 하고, 세균성 질환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도 있다.”는 그는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몸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감염내과는 환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과에서 진단이 쉽게 되지 않는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열이 난다고 병원에 문의하면 감염내과를 권하기도 하고 외래나 응급실 환자를 보기도 하지만 입원해 있는 환자가 감염증세를 보일 때 의뢰받아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타과의 컨설팅이 많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자리에 앉아 검사결과를 분석하거나 환자 자료를 검토하는 일이 많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 허리가 안 좋아졌을 정도다. 이 때문에 시술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귀담아 들어야”

한 번은 30대 중반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박 교수에게 오기 전 목에 임파선이 커져서 여러 과를 다니며 검사를 했다. CT를 찍어보니 배와 가슴에도 임파선이 커져 있었다. 림프종이 의심돼 조직검사를 했다. 림프종 진단은 나오지 않았다. 의뢰가 왔다. 매독으로 의심되어 매독 검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양성 반응이 나왔다. 매독으로 임파선이 커졌던 것이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HIV환자, 일명 에이즈 환자를 많이 보는데 그 환자들도 여러 과를 전전하다 박 교수에게 오는 일이 많다. 환자 본인도 모르고 지내다가 숨차고 열나고 면역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치료받고 면역이 회복되어 정상인과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최근 미열이 2~3주째 난다는 환자가 찾아왔다. 그동안 병원에만 가면 열이 안 나고 집에 가면 열이 난다고 했다. 3주 이상 열이 나면 하는 검사를 했지만, 검사상 아무 문제가 없어서 퇴원을 했다. 입안에 궤양이 생기고 배가 아프고 근육이 튼는 느낌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신경계 검사도 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다. 몇 달 지나서 눈이 충혈되고 눈에 문제가 생겨서 찾아왔다. 이 사례는 박 교수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귀담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다.

증상이 여러 달 동안 하나둘 나타나기도 하고, 1년 후에 나타나기도 하는 등 일부 같은 질환의 경우라도 환자마다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 박 교수는 그 증상을 보고 원인을 추측해 필요한 검사를 결정하고 진단하는 과정, 병의 원인을

유추하는 과정이 흥미롭단다. “추리하는 기분”이라는 것이다. 다른 과에서 입원한 환자를 이것저것 검사하면서도 진단을 못 내리고 있을 때, 감염내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아 추리하고 가설세우고 찾아간다. 박 교수는 이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새로운 질병에 대한 다양한 지식 필요”

박 교수가 감염내과 의사로 갖춰야 할 자질로 꼽는 또 하나는 다양한 지식이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는 설명이다. 외국에서 어떤 감염질환이 유행했다 하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재빨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메르스, 지카, 황열 등 외국에서 크게 유행하는 병은 바로바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파악해야 한다.

실제 감염내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은 발열이 주 증상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발열이 모두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암이나 루프스나 혈관염 같은 비감염성 질환도 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발열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발열의 원인이 감염증에 의한 것인지 비감염 질환에 의한 것인지 감별하기 위해, 감염증이 아닌 질환도 공부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술부위 감염의 경우 이에 대해 잘 파악하려면 수술에 대해 알아야 한다. 수술한 집도의와 대화를 많이 나눠서 수술 이후의 치료 계획을 알아야 하고 항생제 투약 양과 기간을 결정한다. 감염내과는 특성상 타과의 협진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

최근 박 교수는 대상포진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그는 “얼굴이나 눈에 대상포진이 발생한 경우, 추후 뇌경색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상포진 환자에서 침을 빨아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DNA를 검사하면 약 90%에서 양성이 나온다. 면역력이 푹 떨어지는 50대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었는데 최근에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젊은층에서도 많이 발병하고 있다.”며 이 병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일산지역 말라리아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말라리아가 5~10월 발생하는데, 1년에 보통 20~30명이 내원한다.”며 “일산동구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증증도는 증가하고, 호전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현상을 발견해서 연구 중”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이러한 현상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산지역 4개 병원이 공동으로 연구해 얼마 전 유럽임상미생물감학회에 초청되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내가 몰라서 환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연구하고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박성연 교수 같은 의사가 있기에 든든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내과 박성연 교수

경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및 박사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서울아산병원 전임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관리실장

전문진료분야
감염질환(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열병, 에이즈, 병원감염, 예방접종,
해외여행상담



서무규 교수의 진료실

대상포진은 왜 무서운가?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예전에는 대상포진이 발병하지 않고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이 질환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뿐만 아니라 당뇨, 악성종양, 후천면역결핍증후군 등 면역저하 환자들에게 더욱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환자의 약 50%는 포진 후 통증이 발생하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삶의 질 저하를 보이게 됩니다. 이에 50세 이상 면역이 정상인 사람은 평소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어떨 때 스스로 대상포진이라고 의심하여 병원에 찾아 가야 하나요?

대상포진은 과거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게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피부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저하, 감정적 스트레스, 방사선조사, 종양, 국소 외상 등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으로 인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특이 세포면역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질환입니다. 이때 신경과사와 염증을 유발하고, 신경을 따라 내려가 피부에 특징적인 군집성 물집을 형성합니다. 피부가 붉게 변하고 여러 개의 작은 물집들이 모여서 생기며 통증을 유발하면 대상포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한쪽 신경절만 침범하므로 위의 증상들이 한 쪽으로만 생길 때 의심해 볼 수 있으며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오면 대상포진을 치료해서 안 아플 수가 있나요?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으로, 대부분의 항바이러스제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은 하지만 균을 죽이는 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더라도 병변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항바이러스제와 동시에 진통제, 습윤 드레싱 등의 치료로 통증을 완화시키면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치료 목표는 통증 억제, 바이러스의 확산 및 이차 세균감염 억제, 포진 후 통증 등의 합병증 예방 및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범발성 대상포진 ▶ 대상포진 발생 부위 외 전신에 수두모양의 발진이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간혹 수두로 오인되기도 하며, 고령이나 악성림프종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안구 대상포진** ▶ 눈 주위 신경절을 침범하였을 경우 발생하며, 비모양체 신경분지에 침범이 일어난 환자의 약 3명 중 1명에게 발생합니다. 또한 끝과 측면에 물집 발생으로 안구의 침범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발진은 눈 주위에서부터 두경부까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마 중앙선을 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합병증으로 포도막염, 각막염, 결막염, 망막염, 시신경염, 녹내장, 안구돌출, 안근마비 등이 발생하며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안과적 진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귀 대상포진** ▶ 귀 주위 신경절을 침범하였을 경우 발생하며, 경미한 발열과 피곤함을 동반한 전구증상 후에 심한 귀 통증과 함께 안면마비, 이명, 안구진탕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혹 전정기 등을 침범하여 현기증이나 감각 신경성 난청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뇌의 이상을 감별하기 위해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의 협진이 필요하며, 초기에 전신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 안면마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원성 방광 ▶ 제3천골신경절 또는 드물게 제2천골신경절과 제4천골신경절에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배뇨장애 등을 일으킵니다.

포진 후 통증 ▶ 피부병변이 호전된 후 또는 병터가 발생한 지 1~3개월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로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합병증입니다. 50세 이하에게는 비교적 발생이 드물며 60세 이상에서 약 2명 중 1명에게 발생합니다. 연령 이외의 위험인자로는 전구기 및 급성기의 심한 통증과 발진, 안구대상포진 등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이라도 안 아픈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대상포진이 모두 아프고 피부병변이 꼭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아프지 않고 가렵고 피부병변만 생기거나, 아프기만 하고 피부병변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포진의 무서운 점은 신경절을 침범하면서 생기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병원에 꼭 내원하여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꼭 맞아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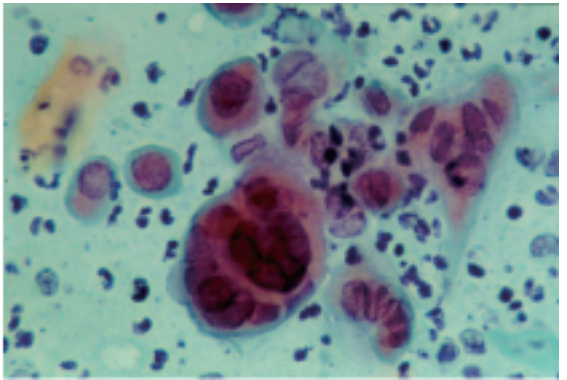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약독화 수두 생백신으로 2006년 미국 식약청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고령에서 대상포진과 포진 후 통증의 발생 및 심각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단 1회의 피하주사로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상포진이 발생한 급성기나 포진 후 통증의 치료에는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폐렴구균예방접종과 동시 접종이 불가능하며, 1개월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예방접종의 금기로는 현재 대상포진이 발생하였거나 결핵환자 그리고 면역저하자 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50세 이상의 면역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권고되고 있으니 병원에 오셔서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으면 대상포진이 걸리진 않나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100%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맞지 않은 사람보다 경하게 발병하듯이 대상포진도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한 증상 및 포진 후 통증 등과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피부과 서무규 교수
전문진료분야 » 진균증, 여드름, 대상포진, 아토피, 건선, 백반증, 탈모증

정윤정 교수의 진료실

아직도 결핵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

외래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결핵은 ‘옛날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환인 동시에 아직도 우리 가까이에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천만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매년 약 3만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며 약2천 3백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결핵은 ‘옛날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환인 동시에 아직도 우리 가까이에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천만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매년 약 3만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며 약2천 3백여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공기로 전염되는 질환입니다. 즉,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도 한 명의 결핵환자가 기침을 하여 결핵균을 배출하기 시작하면 그 공간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염시켜 결핵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핵균은 결핵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하고 노래하고 웃는 경우에 입에서 튀어나온 작은 공기 방울 내에 포함되어 주위의 사람에게 퍼지게 됩니다. 다만, 전염력의 강도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크며, 같이 결핵균에 노출되어도 모두가 결핵에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결핵균으로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결핵균이 폐 안으로 들어와 결핵균 감염이 일어나는데,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의하여 결핵균 증식이 억제되고 그 상태에서 회복되면 결핵이 발병하지 않으나 몸 안에 숨어있는 상태, 즉 ‘잠복결핵’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결핵에 감염된 사람은 평생에 걸쳐 10명 중 1명꼴로 활동성 결핵, 즉 질병으로서의 결핵이 발병합니다. ‘잠복결핵’은 질병이 발병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고 전염력도 없으나, 향후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활동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면역저하자 또는 의료인을 포함해 특수한 직업을 가진 경우에 치료 대상이 됩니다.

활동성 결핵의 초기 증상으로는 2~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혹은 피가 섞인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가장 흔하며, 체중 감소, 발열, 밤에 생기는 발한, 오한, 식욕감소 등의 전신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이 의심될 경우 먼저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결핵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가능한 과거에 시행한 사진과 비교해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거나 판단이 애매할 경우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고려합니다. 활동성 결핵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객담 검사에서 결핵균 검출 여부이며, 도말검사와 배양검사, 결핵 유전자 검출방법을 사용합니다.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으며, 처음 객담검사에서 검출되는 결핵균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적절한 결핵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나면 전염성이 대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질병이 상당히 진행한 상태에서 진단받는 경우, 특히 객담에서 검출되는 결핵균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검출되는 결핵균이 사라질 때까지 전염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수 주에서 때로는 수 개월 이상 적절한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폐결핵이 아닌 결핵성 늑막염, 결핵성 임파선염과 같은 폐외 결핵만 있고 객담에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염성이 없으므로 결핵으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사람이 격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핵은 적절한 항결핵제를 복용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완치되는 질환이지만, 6개월이상 3~4가지 이상의 많은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제 부작용 또는 증상이 호전되어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한 기간 치료를 하지 않고 약을 중단하게 되면 결핵이 다시 악화되거나 추후에 재발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불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약제에 내성을 보일 소지가 있던 균들이 살아남아 내성을 가지게 되고, 치료에 실패하고 증상이 다시 생기면서 병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처방 받은 항결핵제는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충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결핵완치의 유일한 방법이며 환자와 의료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을 산정특례 질환으로 분류하여 그와 관련된 대부분의 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결핵 환자와 접촉자를 관리하며, 최근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 대상자의 확대 등의 정책으로 결핵 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여전히 위협적인 전염병이지만, 질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보다는 결핵균 전파를 예방하고 결핵의 조기진단과 치료성공을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호흡기내과 정윤정 교수
전문진료분야 » 폐암, 결핵, 폐렴 및 급 만성 호흡기 질환

서유리 교수의 진료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해야 하나요?

로타바이러스는 5세 미만의 영유아 95%가 한 번은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감염에 의한 중증도는 다르지만 심한 탈수성 설사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로타바이러스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까요?



로타바이러스란 무엇인가요?

로타바이러스는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하나로 전 세계 5세 미만의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심한 위장관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월에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4월에 정점에 도달하고 5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연령별로는 생후 6~23개월에서 가장 많이 감염됩니다.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아는 1~3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자기 열과 구토가 발생하고 이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증상은 3~8일간 지속되는데 특히 3~35개월의 소아에서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한 항바이러스제는 없고 구토와 설사에 의한 탈수와 전해질의 불균형, 산·염기 불균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액보충이나 전해질, 산·염기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은 전세계에서 연간 2천 5백만명이 진단되고 약 2백만 명이 입원하고 약 5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000명의 소아 중 56.9명이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이러한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을 75% 이상 예방할 수 있고, 심한 중증도의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은 85%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후 장중첩증(장의 한 부분이 장의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것)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선택 예방접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타바이러스 감염의 위험과 감염되었을 경우 위장관염의 심한 정도, 예방접종에 따른 효과와 비용 및 위험 등을 보호자와 상의한 후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WHO(세계보건기구), UNICEF, AAP(미국 소아과 학회) 등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해서 얻는 이득이 장중첩증의 발생 위험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언제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로타텍과 로타릭스 2가지 예방접종이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타텍과 로타릭스는 제조

방법과, 사용되는 항원, 접종 횟수 등에 차이가 있지만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에 대한 효과는 둘 다 비슷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을 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로타텍은 생후 2, 4, 6개월에 총 3회 접종을 하고 로타릭스는 생후 2, 4개월에 총 2회 접종을 합니다. 두가지 예방접종 모두 경구용 예방접종으로, 생후 6주 0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마지막 접종은 8개월 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로타텍과 로타릭스 간의 교차접종에 관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가능한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방 접종을 시작하기 전이나 접종 일정이 완료되기 이전에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에 걸린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통해 완전한 면역을 얻기 위해 접종을 시작하거나 남은 접종 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숙아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출생 후 6주가 지났고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이면 외래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장중첩증을 앓은 병력이 있거나 중증복합면역결핍을 진단 받았다면 예방접종은 금기입니다. 또한 이전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경우에도 접종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예방접종처럼 미열이 동반되거나 경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생후 2, 4, 6개월에 접종하는 다른 예방접종들(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구균 단백결합, 불활성화 폴리오바이러스, B형 간염)과 동시에 접종도 가능합니다. 간혹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할 때 뱀어 내거나 예방접종 후 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접종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서유리 교수
전문진료분야 » 소아 감염 질환, 1차성 면역 결핍 질환

감염병 관리, 예방이 최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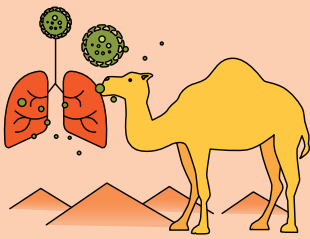
2018 중점관리 해외유입 · 신종 감염병

해외여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여행 前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 해열제 등 구급약과 모기기피제 준비하기, 예방접종을 받거나 예방약 복용하기 특히,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을 연기한다.
여행 中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이나 동물접촉을 피하고, 모기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기침예절 지키기, 올바른 손씻기, 음식 완전히 익혀먹고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등
여행 後	발열, 설사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하거나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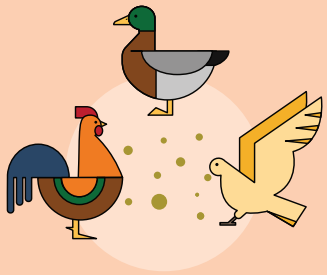
해외여행 시 감염병 안내 서비스

- 1 국가별 주요 발생 감염병 홈페이지 제공(<http://cdc.go.kr>)
- 2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오염국가 방문자 정보검역 추진
 - 감염병 오염국가 도착 시 주의사항 안내문자 발송
 - 입국 후 감염병 증상 신고 안내문자 발송
 - 일선 의료기관으로 오염국가 방문자 정보 공유(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 3 국내외 24시간 1:1 질병관리본부 카카오톡 문자상담
 - * 질병관리본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바로가기: <http://plus.kakao.com/home/@kcdc>질병관리본부



1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 및 병원감염에 의한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 _ (국외)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에서 250명 발생(80명 사망)
 - _ (국내) 2017년 총 220명의 의심환자 신고, 모두 메르스 음성 확인
- 중동국가 방문 시 낙타접촉,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피해야 하며,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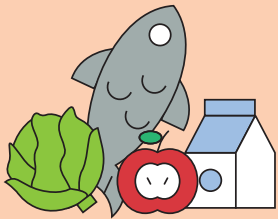
2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 최근 중국에서 AI(H7N9) 인체감염증 발생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AI(H7N4) 등 다양한 아형의 AI 인체감염증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_ (국외) 2018년 2월 말 기준 AI(H7N9) 1,625명(사망 621) 발생, 치명률 38.2%
 - _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환자 발생 없음
- 중국 방문 시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생가금시장 방문을 자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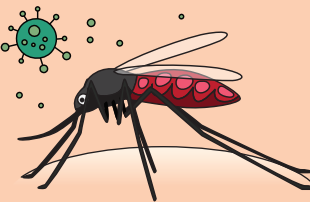
3 라싸열

- 2017년 나이지리아에서 연중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고 최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 _ (나이지리아) '18년(1.1-3.11) 확진 365건(사망 90건)
 - _ (국내) 라싸열 환자 발생 없음
-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지역 방문 시 쥐와 쥐 배설물 접촉을 피하고, 쥐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수인성 · 식품매개질환(세균성이질, 장티푸스)

- 세균성이질 및 장티푸스의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동남아시아 여행객을 중심으로 발생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_ (세균성이질) '17년 111건(해외유입 69건) → '18년(1.1-3.14) 85건(해외유입 75건)
 - _ (장티푸스) '17년 128건(해외유입 50건) → '18년(1.1-3.14) 85건(해외유입 54건)
- 동남아시아 여행 시 음식은 완전히 익혀먹고 포장된 물과 음료수를 마셔야 한다.



5 모기매개질환(뎡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뎡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 _ (뎡기열 해외유입) '17년 172건 → '18년(1.1-3.14) 42건
 - _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해외유입) '17년 11건 → '18년(1.1-3.14) 0건
- 동남아시아 등 발생국가 여행 시 모기기피제 및 긴 옷을 준비하고 임신부는 여행을 연기하며 남녀 모두 6개월간 피임한다.

생애주기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생애주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신생아기,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노년기) 주의해야 할 감염병과 대상에 맞는 예방수칙을 알아보자.

신생아기 (4주 이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감염증,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감염관리 강화(환경 소독, 전염기간 중 격리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하기(손씻기, 기침예절 등)
영·유아기 (0~6세)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성홍열, 수족구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인플루엔자) 어린이집, 유치원 감염관리 강화(환경 소독, 전염기간 중 격리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하기(손씻기, 기침예절 등)
학령기 (7~18세)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성홍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인플루엔자) 학교 감염관리 강화(환경 소독, 전염기간 중 격리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하기(손씻기, 기침예절 등)
청·장년기 (19~64세)	A형간염, 결핵	예방접종 권고(A형간염) 2주이상 기침 시 결핵검진 받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하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노년기 (65세 이상)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결핵, 인플루엔자	야외활동 시 작업복 착용하기 2주이상 기침 시 결핵검진 받기 예방접종 받기(인플루엔자) 개인 위생수칙 준수하기(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국민행동수칙

대부분의 감염병은 간단한 예방수칙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국민행동수칙을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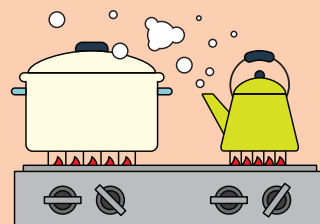
1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 많은 감염병이 손을 통해 전파되며, 올바른 손씻기는 손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애주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옷소매로 기침예절 실천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 기침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주 손을 씻는다.



3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 먹기

-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고 물을 끓여먹는다.
- 채소·과일은 깨끗이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먹고, 위생적으로 조리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예방접종 받기

- 접종 일정에 따라 권고되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 예방접종은 개인과 공동체의 면역력을 높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며,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사망률도 크게 낮출 수 있다.
- 12세 이하 어린이는 HPV 등 17종* 백신,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백신을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수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 폐렴구균은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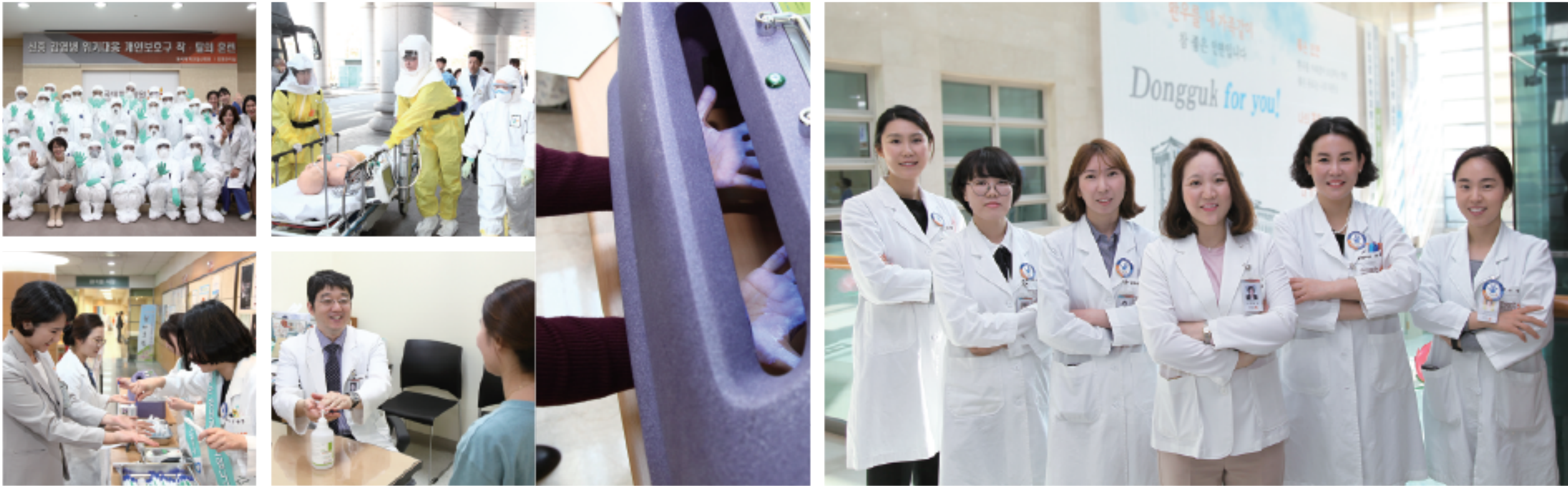
5 해외여행 전 현지 감염병 확인하기

- 해외여행 전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지에서는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외여행 후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의료기관 진료 시 의사에게 여행한 국가와 여행기간을 알려야 한다.

* <http://cdc.go.kr> (모바일 <http://m.cdc.go.kr>)

감염에서 안전한 병원을 목표로 뛰는 사람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관리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는 의료기관에서 감염전파가 검잡을 수 없이 번져 병원내 감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공의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병 고치러 찾아간 병원에서 다른 병에 감염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병원 내 감염, 즉 의료관련감염은 입원당시에 없었고 잠복하지 않았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감염관리란 의료관련 감염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모든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최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의료법 등 감염관리관련 법제화, 인증평가와 병원신입평가 등과 더불어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며 병원내 감염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관리실은 박성연 감염관리실장 이하 감염관리 의사 2명, 감염관리사 1명,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4명이 근무하며 감염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다. 감염관리실은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주요업무는 감염감시활동, 감염관리 지침 제정 및 개정, 감염관리 지침 준수여부 점검, 감염관련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교육과 훈련, 자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박성연 감염관리실장은 “원내 감염관리, 직원 감염관리, 직원교육이 주요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감염질환자가 내원했을 경우 원내에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염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감염관리실의 몫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직원교육과 모니터링을 빼놓을 수 없다. 감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 손위생은 감염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감염관리 예방법이다.

손 위생은 감염관리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감염관리실에서는 손 위생 수행률을 모니터링하고 손을 잘 씻지 않는 의료진에게는 바로 문자를 보내 손씻기를 독려한다. “직원들이 귀찮아할 만큼 따라다니며 잔소리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는 박 실장. 강력한 항생제를 쓰거나 철저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더라도 손 위생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염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 과별로 손위생 수행률 리포트를 만들어 손씻기가 잘 안되는 부서는 찾아가서 감염관리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기도 한다. 훈련된 전문 인력에 의한 신뢰도 높은 손 위생 모니터링이 상시 진행되며 병원 내 어느 직종도 예외는 없다. 박 실장은 “일반인들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손씻기를 잘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도 손씻기를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감염관리실에서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평가회의를 통해 자체 평가하고 다음 회기에 더 나은 감염관리를 하기 위해 꼼꼼하고 치열한 토의를 거치기도 한다.

감염관리실 은 감염분야 전문가 그룹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해외 감염병 사례나 특징, 평가지표 등에 관해 꾸준히 정보를 수집하고 외부 교육을 통해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이같은 노력은 오로지 환자, 직원, 방문객의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병원을 찾는 내원객, 입원환자, 의사, 간호사, 직원 등 살펴야할 부분이 많아 하루하루가 바쁘지만 감염 제로를 위해 감염관리실 사람들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보건복지부 인증평가, 병원신입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간은 4년이지만 2년 단위로 중간평가가 있어 인증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염관리는 신뢰할 수 있다. 또한 해마다 ‘감염관리 주관행사’를 개최하고 캠페인과 강연을 통해 내원객에게 감염관리의 중요성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알려 안전한 병원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신길조 교수의 한방 칼럼

한방과 호흡기 건강관리

물 맑고 공기 좋은 금수강산이 언제부터인지
매일 미세먼지를 점검하고 KF80, KF94라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을 가진 마스크를
호흡이 답답한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쓰고 다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미세먼지는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만큼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질환인 감기, 폐렴,
심혈관질환, 결막염 등을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다.
하지만 높은 일교차, 미세먼지 및 황사, 면역력 저하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적절한 대응방법은 개인의 면역력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법에 유의하며,
질병에 걸리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한방내과
신길조 교수

전문진료분야
사지냉증, 심장질환, 어지럼증,
중풍(뇌경색, 뇌출혈), 당뇨병,
비노생식기질환, 내과순환계질환,
소화기질환



면역력 증진은 어떻게?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적절한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한의학에서 오장육부 중 肺(폐)는 특히 건조한 것을 싫어하는데, 따라서 호흡기질환의 치료에 충분한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
물의 하루 섭취량은 1.5~2ℓ 정도로, 물을 이 정도로 먹기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은 야채, 과일 섭취를
늘리고, 입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자주 먹도록 한다.
식사는 골고루 먹어서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체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음식을 끓이거나 익혀 먹는 것이 좋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열이 나고 가래는 많은데 노랗고 걸쭉하며 혹 목구멍이 아프거나 기침을 심하게
하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음식으로 은행, 더덕, 도라지 등이 좋다.
반면에 얼굴에 혈색이 없고 기력이 모자라 목소리가 작고 말할 기운조차 없으며, 가래는 맑고 흰 경우라면
마, 오미자, 호도, 무를 권한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호흡기질환자가 병이 오래도록 호전되지 않는 허약
상태라면 차로는 생맥산(인삼, 맥문동, 오미자),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는 처방으로는 경옥고가 있다.
갈증을 없애는 음식으로는 오디, 마, 오미자, 둥글레, 배 등을 권한다.
유익할 것은 도라지, 더덕은 가래가 많은 기침에 효과가 있으며, 독성이 있는 살구씨, 복숭아씨, 은행은
많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은행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하며, 어른은 하루 10알 미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운동은 유산소운동을 권장하는데, 걷기의 경우 40분 정도 일주일에 4~5회 정도가 적당하다. 걷는 중에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조절을 하면 운동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다만 오염물질과 관절부담으로 이른
새벽운동은 호흡기질환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몸에 통증이나 운동 후 심한 피로감을 느낄 정도의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려 운동효과를 얻기 어렵다.

일상생활 예방법은?

집 및 직장에서 가습기, 화초 등을 이용하여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 유지(40%)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최소한 하루 한번 정도는 환기를 시켜야 한다.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 알레르기 물질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도록 하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규격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평소보다 물을 더 먹도록 하며, 야채나 과일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감기나 독감이 유행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고, 외출 후 손 씻기와 양치질은
반드시 하도록 한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면 금연도 필요하다.

기침을 심하게 오래한다면?

가장 많은 원인은 코가 목으로 넘어가 기침이 유발되는 ‘후비루’ 증상이다. 이 증상은 알레르기나
미세먼지로 인한 코질환으로 가장 많이 유발된다.
폐렴의 경우 초기에는 감기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열과 심한 호흡곤란 등이
함께 나타난다. 노인의 경우 열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천식은 숨찬 증상과 그르렁 거리는 소리가 나며, 기침을 발작적으로 하는데,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
감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데, 감기 증상이 열흘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진료를 받도록 한다.



건강하게 식사하기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관리

여름철에는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 등으로 식중독균의 증식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음식관리에 조금만 소홀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름철 가정에서 식중독 예방 및 관리법을 알아보고, 대표적인 여름 음식들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방법과 관리

- 1 식재료는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하며, 유통기한과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합니다.
- 2 냉장 · 냉동식품은 상온에서 세균이 증식하므로 마지막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용품 → 채소 · 과일 → 냉장 가공식품 → 육류 → 어패류 순)
- 3 식품 구매는 1시간 이내로 하고 귀가 즉시 냉장고 등에 보관합니다.
(식품 운반 시 아이스팩, 아이스박스 사용 권장)
- 4 냉장고는 위치별로 온도가 다르고 여닫는 과정에서 온도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하기 쉬운 식품은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별 온도 : 냉장 문쪽 > 냉장 채소칸 > 냉장 안쪽 > 냉동 문쪽 > 냉동 안쪽)
- 5 냉장고에 넣기 전 이물질, 흙을 제거하고 랍이나 용기에 밀봉하여 보관합니다.
- 6 조리 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 7 냉동식품은 냉장실에 넣어 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밖에 냉수에 담가 두거나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 8 채소 · 과일은 수돗물에 1~2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습니다.
(생으로 먹는 채소 · 과일은 전용 세척제의 사용 권장)
- 9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조리 된 식품은 칼 · 도마 등을 구분하여 사용 합니다.
(가금류, 수산물 등 세척 시엔 주변에 생으로 먹는 식품이 없도록 유의!)
- 10 물은 끓여서 마시며, 어육류는 식품의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가열 조리합니다.

여름철 음식, 안전하게 먹기!

여름철에는 음식은 재료의 위생 뿐 아니라 손 위생, 조리도구의 구분사용, 충분한 가열처리(재료의 중심온도가 육류 75℃, 어패류 85℃, 1분 이상씩) 등이 중요하며, 조리된 음식도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콩국수

대표적인 여름철 음식인 콩국수에 사용되는 콩국물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영양분입니다. 위생적인 보관만으로도 식중독균의 증식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가열 조리한 뜨거운 콩국물은 신속히 냉장 ·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다른 식품의 보관온도를 높일 수 있기에, 한 김 식힌 후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회

생선회는 여름철 대표 식중독 발생 위험음식입니다. 해수에 서식하는 장염 비브리오균이 생선을 오염시켜 발생되며, 흐르는 수돗물에 충분히 씻어 먹으면 괜찮습니다. 생선 취급 시의 조리도구 및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회 뜬지 4시간 이내에는 섭취하도록 합니다.

조개

조개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유발하는 음식으로 식품 구입 · 보관 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신선한 어패류를 구입하고 구입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을 합니다. 날로 먹는 것은 피하고 충분히 가열처리해서 먹도록 합니다.

삼계탕

닭은 캄필로박터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밀봉된 냉장 · 냉동의 닭을 구입하고, 씻을 때는 특히 주변에 생채소, 생과일 등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냉장보관 시에는 밀폐용기를 이용합니다. 조리 시에는 충분히 가열하고 조리 후에는 가급적 빨리 먹는 게 좋습니다.

김밥

김밥은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의 원인식품으로 부적절한 개인위생과 병원성대장균에 오염된 채소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소류는 전용세척제(가정에서는 식초도 가능)를 이용하여 5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씻어야 하며, 밥과 재료를 식힌 후에 만들어야 합니다. 조리된 후에는 상온에 방치하지 않고 2시간 이내에 먹도록 합니다.

햄, 치즈, 소시지

가공식품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은 보툴리누스균과 병원성 대장균 때문입니다. 보툴리누스균의 독소는 100℃에서 1~2분간 끓이면 분해되지만, 그 포자는 120℃ 이상에서 4분 이상 끓여야 사라지므로 용기 상태가 불량인 캔류는 먹지 않도록 합니다. 병원성대장균의 경우도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재료의 중심온도 75℃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특별한 휴가, 양양 & 평창

강아지는 반려동물이라 불리며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 곁에서
함께 하고 있다.
애견인 천만 시대가 열리면서
관련 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강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란 쉽지 않다.
강아지와 휴가를 보내고 싶은 소망은
모든 애견인에게 생각 보다
넘기 힘든 산이다.
강아지를 동반하여 입장이 허용되는
곳이 많지 않을뿐더러,
설사 입장한다 해도 주위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감수해야 한다.



개캉스의 파라다이스 - 양양 멍비치

‘강아지와 함께 백사장을 마음껏 뛰어놀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실현해 줄 바다가 양양의 남해 해변에 있다. 개가 짖을 때 내는 소리인 의성어 ‘멍멍’에 바다의 영어 단어 비치(Beach)를 붙여 멍비치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2016년 7월에 처음 오픈한 멍비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려견과 함께 백사장을 뛰어놀며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강아지 전용 해수욕장으로 개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예 출입할 수 없다. 남해 해변에서 약 100~130m 구간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애견 전용 해변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인 남성의 허리 정도까지 오는 약 1m 20cm 깊이의 바다까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놓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하루에 두 번씩 모래사장을 소독한다. 또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여 혹여나 강아지들이 잘못된 음식을 주워 먹는 일을 방지하고 철저한 배설물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해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려견과 신나게 추억을 만들기엔 이만하면 충분하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먼 길을 달려온 만큼 부푼 기대를 안고 멍비치의 백사장에 들어서자 파라솔 사이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많은 강아지가 눈에 띈다. 넘실대는 푸른 파도 위를 헤엄치고 있는 강아지 역시 심심치 않게 보인다. 강아지들은 주인이 바다를 향해 던진 원반을 멋지게 물어오거나 주인과 함께 유유히 해변을 거닐며 모델 포스를 풍긴다. 물놀이하다 지친 후엔 주인과 강아지가 나란히 누워 모래찜질하며 피로를 푼다. 여러 종의 강아지들이 한데 어우러져 주인과 교감하며 자신만의 바캉스를 즐기고 있는 풍경은 그야말로 개들의 파라다이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멍비치를 찾은 애견인의 얼굴 역시 모두 어린이처럼 해맑다. 그동안 쉽게 실행하지 못했던 강아지와 함께 보내는 휴가를 하고 있으니 그럴만하다.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푸른 바다를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멍비치가 갈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2013년에 강릉 사근진 해변에 처음 강아지 전용 해수욕장이 생겼으나, 일부 애견인들의 물지각한 행동 탓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46일 만에 문을 닫기도 했다. 애견인의 한 사람으로 강아지와 여행을 왔다면 주민들과 일반 여행객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항상 깨끗하게 주변 정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강아지와 함께 즐기는 바캉스, 즉 개캉스를 지속해서 즐길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살랑이는 바람 따라 - 대관령 순수 양떼목장

바다에서 시원하게 수영을 하며 놀았다면, 이번엔 초원이 펼쳐진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차례다. 양떼 목장으로 유명한 대관령에는 여러 곳의 목장이 있는데 그중에 순수양떼 목장은 유일하게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한 목장이다. 과거 이름은 ‘지르메 목장’으로 양을 방목하여 기르는 곳으로 입소문을 탔지만, 대관령을 대표하는 다른 양떼목장에 비교하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2016년 여름 목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순수양떼 목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강아지를 출입 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양을 방목하고 있어 이색적인 특징을 잘 살린 아름다운 목장이 되었다. 입장 시 사료가 담긴 바구니를 나눠주어 축사나 방목장에서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할 수 있다.

강아지와 함께 목장에 들어서자 풀을 뜯어 먹고 있던 산양이 다가온다. 산양은 그동안 이곳에 방문한 강아지들을 많이 보았는지 강아지가 다가가 냄새를 맡아도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강아지가 생전 처음 보는 동물인 산양에 더 큰 호기심을 보인다. 강아지의 낯선 표정을 보고 있으니 어린아이가 친구를 처음 사귄 때 쭉뚱거리며 귀엽게 웃는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나기도 한다.

방목장 사이로 난 산책로는 우거진 적송이 뿜어내는 피톤치드 향 덕분에 청량감이 가득하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숲길의 풍경이 아늑하게 다가온다. 산책로를 따라가면 목장의 꼭대기에 있는 하늘 정원 전망대로 향한다. 오르막으로 이루어진 길이라 다소 힘들지만, 정상에 다다르면 탁 트인 대관령 일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해발 800m 이상에 위치하여 한여름에도 상쾌한 바람이 분다. 구름은 산 중턱에 살포시 걸리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아래 놓인 시내의 풍경을 그네에 앉아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으니 하늘을 떠 있는 듯한 미묘한 기분이 든다.

강아지는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적록색맹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파란색은 강아지가 가장 잘 구별하는 색이다. 햇살에 반짝이며 부서지는 동해의 푸른 바다는 강아지에게 보석처럼 빛날 것이며, 함께 숲을 거닐며 산양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하는 순간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날이 좋은 날이 좋지 않은 우리 역시 강아지와 함께 한 여행의 모든 순간이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받는 가장 큰 격려는
바로 여러분들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입니다.

고객의
소리

따뜻한 카리스마의 산부인과 노주원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산부인과 노주원 교수님은 평생 제 마음 속 1순위로 간직하고 살아 갈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는 급 발병한 난소암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왔습니다.

온종일 지친 수술 후 밤늦은 시간에도 항상 회진 오셔서 이야기 해주시고, 질문 하나에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십니다.

하루 중 교수님 뵙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교수님을 무조건 믿고 신뢰하니 그 힘든 여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을 마치고 덕분에 회복이 이렇게 빨리 되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난소암 1기로 항암하면 완치 된다니 없던 힘이 납니다.

교수님 정말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하세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환자를 내 가족처럼 정성어린 마음으로 대하시는 심장혈관내과 배준호 교수님

어느 토요일.. 어머니가 임종 직전이라 가족 모두 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심장혈관내과 배준호 교수님이 해외연수를 떠나시기 전 심장혈관내과를 다녔습니다.

배준호 교수님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로 신뢰를 하시는데 해외 연수를 떠나신 후 점점 상태가 안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교수님이 해외에서 돌아오셨지만 의식이 없어서 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진을 오신 배준호 교수님이 담당 환자도 아닌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병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교수님은 의식이 없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저희에게도 위로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 길에 교수님의 진심어린 말 덕분에 편안히 잘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환자 한분마다 정성어린 마음으로 대하시고 내 가족처럼 진료해주시는 배준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사고와 질병이 잦은 저에게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친절과도 같이 포근한 곳이었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담당 선생님들의 친절함은 언제나 환자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신속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특히 이번에 골절로 입원한 저를 치료해 주신 문소리 선생님의 적극적 치료와 따뜻한 배려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말이 어지럼증으로 입원했을 때 담당 인턴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한의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친절에 감사드리며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DUMC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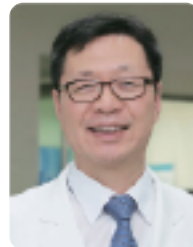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제9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조성민 교수 취임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3월 6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제9대 조성민 신임 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이진호 의료원장을 비롯해 약 2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해 제9대 병원장 취임을 축하했으며, 병원발전에 대해 꿈과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성민 병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2018년은 개원 시 병원이 품어왔던 꿈이 실현되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라며, “모두가 바라는 최고의 병원은 우리 모두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며,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연구논문, 국제조직공학재생의학학회 학회지 표지 선정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의 연구논문이 국제조직공학재생의학학회(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International Society)의 학회지인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에 2018년도 4월호 표지로 채택됐다. 임 교수의 이번 논문은 '생체 외 환경에서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나노지형의 영향(Nanotopographic Influence on the In Vitro Behavior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에 대한 연구다.

임균일 교수는 현재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학회 부회장으로 역임 중이며, 세계 골 관절염 연구학회(OARS)상임이사, 세계정형외과연구학회 연맹(ICORS)차기회장, 한국생체재료학회 차기 회장이다.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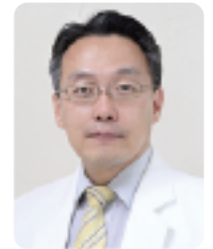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는 지난 4월 제31차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 학술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국내 스포츠 관련 학회 중 권위 있는 학회인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의 상기 연구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한 결과로 그 의미는 더한다.

안 교수의 논문 주제는 '슬관절 굴곡 및 외부 부하에 의한 전외측인대의 길이 및 생역학적 변화'를 연구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미국 UC Irvine 정형외과 연구팀과 공동으로 슬관절 굴곡에 의한 전외측인대

의 길이 변화와 슬관절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에 대한 전외측인대의 반응을 측정한 것으로, 향후 수술 술기 발전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 2018년 판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판에 등재됐다.

김형석 교수는 2014년부터 비뇨기 종양학 및 복강경 수술로 대표되는 최소 침습 수술을 전공하고 방광암의 병태 생리 및 예후 인자와 관련된 활발한 임상연구 활동 및 최소 침습 수술과 관련된 수술 방법 향상을 위한 임상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20여 편에 달하는 다수의 임상 논문에 주저자로 참여하며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SCI와 SCIE 저널에 게재한 바 있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그동안 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 결과의 일환으로 2015년 교육부장관 표창장과 2015년 대한내비뇨기과학회 우수 논문상, 2016년 임상 최우수 국외 논문상 등 다수의 수상 이력이 있다.



건강증진센터 확장 오픈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2일 오후 건강증진센터 4층 로비에서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스님과 이진호 의료원장, 조성민 병원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증진센터 확장 개소식을 했다.

이번에 확장 개소된 건강증진센터는 검진프로그램 구성 강화와 내원객의 편의성 제공에 초점을 두고 대기 공간 확장과 기존에 운영됐던 내시경검사실을 3곳에서 4곳으로 증설, 회복실을 기존 5병상에서 10병상으로 대폭 증설했다. 또한,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위의를 지킬 수 있도록 스님 전용 진료실과 전용 대기실, 전용 탈의실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스님들만의 특화된 승가케어 검진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018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되는 ‘2018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했다. 박람회 첫날인 29일 여성의 적 유방암 예방을 위해 외과 객범석 교수가 참여해 ‘유방암 핑크리본 캠페인’을 펼쳤으며, 이와 함께 한방소아 청소년과 민상연 교수의 한방 건강 상담 및 사상체질검사에 200여 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30일은 올바른 손 씻기를 위한 체험과 재활의학과 자세 교정 전문의가 바른 자세 상담 및 ‘꼬꼬 체조’, ‘굿 밴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밖에도 박람회 동안 스님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소개 및 혈압, 혈당체크 등 의료지원을 진행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경북 최초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신방광조성술 성공

비뇨기과, 외과, 산부인과 연합팀은 방광 근육까지 전이가 된 침습적 방광암 환자의 방광을 완전히 제거하는 근치적 방광절제술과 절제된 방광을 대신하여 만든 새로운 방광에 요관과 요도를 연결하는 신방광조성술을 경북 최초로 시행하는 쾌거를 이뤘다.

방광을 떼어낸 환자가 인공방광수술을 받지 않으면 평생 소변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함에 따라 대중목욕탕 이용도 힘들고 피부 감염 등이 발생되어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만 인공방광수술을 통해 수술 전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요도로 소변을 볼 수 있어 삶의 질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차이가 있다.

대구·경북 최초 눈중풍(망막혈관폐쇄) 혈전용해술 성공

안과, 신경외과에서 눈중풍인 중심망막동맥폐쇄 환자를 혈전용해요법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하였다.

안과 이승우·신경외과 송원배 교수팀은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안과를 찾은 환자(55세, 남)의 안동맥에 혈전용해제를 주입하는 치료법을 시행한 결과 망막의 혈류를 개선하고 시력이 호전되었다.

중심망막동맥폐쇄의 경우 질병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질환이며,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최근 뇌혈관센터의 최신 뇌혈관조영촬영기 도입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뇌혈관센터 개소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3월 12일 뇌혈관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독일 지멘스사의 최첨단 3차원 혈관조영촬영기 도입을 비롯한 57종의 의료장비와 비품 추가 도입으로 뇌혈관조영술과 심장혈관조영술이 동시에 시행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경주와 인근지역 환자에게 최적의 심뇌혈관 치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는 24시간 365일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최단 시간내에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협력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되어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는 병·의원으로 진료의뢰·회송하는 제도이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현재 310여개의 의료기관과 진료협력관계를 맺고 진료의뢰와 회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 내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원급과의 정보공유 및 진료의뢰-회송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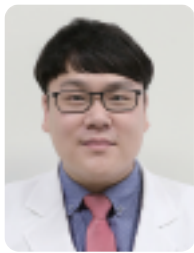
신경과 박진모 교수, 신장내과 김효진 교수 한국연구재단 ‘생애 첫 연구사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8년도 상반기 ‘생애 첫 연구사업’에 신경과 박진모 교수, 신장내과 김효진 교수가

선정되었다.

‘생애 첫 연구사업’은 연구역량을 갖춘 신진 연구자에게 연구기회를 보장하고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연구과제인 ‘말초신경-근육질환의 진단 및 평가를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박진모 교수)’, ‘혈청 헵시딘이 복막투석 환자에게 미네랄 대사 및 빈혈 조절, 심혈관 인자와 잔여 신기능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김효진 교수)’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이 기대된다.



신경과 박진모 교수



신장내과 김효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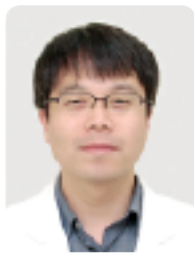
비뇨기과 이경섭, 권세운 교수팀 우수논문상 수상

비뇨의학과 이경섭, 권세운 교수팀은 지난 3월 16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33차 유럽비뇨기과학회(EAU)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GV1001의 임상적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논문이 베스트 포스터(우수 논문)로 선정되었다.

유럽비뇨기과학회(EAU)는 미국비뇨기과학회(AUA)와 더불어 비뇨의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이다. 이번 우수 논문은 1,220개의 발표 논문 중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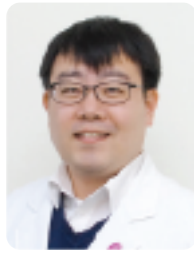
비뇨기과 이경섭 교수



비뇨기과 권세운 교수

신장내과 유경돈 교수, 젊은 연구자상 수상

신장내과 유경돈 교수가 도쿄에서 열린 국제 신장학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젊은 연구자상은 40세 미만 연구자 중 논문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젊은 연구자 5명을 선발하여 수상하였으며, 유경돈 교수가 유일한 한국인 수상자이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연우회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및 점등식’ 참여

지난 4월 16일 오후 성남시청 및 성남불교사암총연합회가 주최한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박성식 병원장 및 김근우 연후회장과 연우회원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봉축법요식 및 봉축 점등식으로 이땅에 오신 부처님의 자비 광명과 중생제도를 기원하는 탑돌이 행사로 마무리 됐다.



2018년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자체 안전관리 점검실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3월 27일 ‘2018년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자체 안전관리 점검실시’에 따라 자체점검을 받았다.

조사범위는 건축, 전기, 가스, 소방안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과 건축법 준수여부, 건축구조안전성, 건축마감, 관리상태(유지, 재난, 안전)로써, 모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박성식 병원장은 “이번 진단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안전사고에 대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공의 수료식 개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지난 2월 21일 ‘2018 전공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박성식 병원장, 금동호 교육수련부장, 정승현 진료부장, 박진수 원무팀장 등이 참석한 이번 수료식에서는 레지던트, 인턴 과정을 수료한 일반수련의 5명, 전문수련의 5명 등 전공의 10명에게 수료증과 공로패를 전달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식 병원장은 “환자들에게 참된 치료와 신뢰를 통해 존경 받는 훌륭한 전문의가 돼 행복한 날들을 이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동문회 장학금 기탁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동문회는 지난 2월 24일 오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동재동’ 장학기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 ‘동재동’ 장학기금은 매년 후배 의학도들에게 해의 우수 재활의학과병원을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의학교육 합동 워크숍 및
지역사회 · 동문 초청 토론회

동국대학교의과대 ·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경주코모도호텔에서 의학교육 합동 워크숍 및 지역사회 · 동문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동국대학교의과대 · 의학전문대학원을 사랑하는 지역사회 및 학부모 대표, 졸업동문들이 초청됐으며, 21세기 의사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과 미래 의료 환경에서 의사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의학교육 주체인 동국의대 · 의 전원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2018년 보건의 날,
박선동 교수 대통령상 수상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선동 교수는 지난 4월 6일 ‘2018년 보건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박선동 교수는 한의사 양성과 학회 활동을 통해 학문 발전에 대한 기여와 한의학의 과학적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박 교수는 수상소감으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큰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한의학이 현대 의료시스템에 맞는 교육으로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염원하는 큰 뜻 !
자비 나눔으로 동참해주십시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약사여래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발전

발전기금 안내

- 동국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기부자 예우

구 분		의료비 감면					
		건강검진 (년 1회)	진료비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주치의	한방보약	영안실	비 고 (진료비 무료 연간 적용기간)
회원예우	누적기부총액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다이아몬드	5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무료(50%)	무료(무료)	연간 180일 이내(입원)
에메랄드	1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50%(50%)	무료(무료)	연간 90일 이내(입원)
사파이어	5억	무료(무료)	무료(20%)	배정	50%(30%)	50%(50%)	연간 90일 이내(입원)
루비	1억	50%(50%)	20%(20%)		20%(20%)	30%(30%)	
도세/자애	5천만원	30%(20%)	20%		20%(20%)	20%(20%)	
신실/섬심	1천만원	20%(20%)	15%		20%(20%)		
1백만원			10%				

1. 상기 내용 중 배우자는 기부자 생존시까지로 한정됩니다.
2. 치과는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하며 영안실은 시설사용료에 한합니다. 상기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진료비와 한방보약의 감면은 별도로 적용되며, 한방보약은 직접복용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자 문의

동국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 TEL 031. 961. 5753 FAX 031. 961. 5759 e-mail hongbo@dumc.or.kr

동국대학교일산병원·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발전기금 담당
▶ TEL 031. 961. 5753 FAX 031. 961. 5759 e-mail hongbo@dumc.or.kr

동국대학교경주병원·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발전기금 담당
▶ TEL 054. 770. 8126 FAX 054. 770. 8500 e-mail dumccs@dumc.or.kr

동국대학교보당한방병원 발전기금 담당
▶ TEL 031. 710. 3718 FAX 031. 710. 3780 e-mail dumcbh@dumc.or.kr

나눔의 동행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 스님, 발전기금 1천만 원 전달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 스님은 2월 19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앞서 보광 스님은 지난 2015년에 1천만 원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데 이어 두 번째 이어지는 나눔 실천이다.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은 “해가 갈수록 발전하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모습에 감회가 새롭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병원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취지를 전했다.



불교 신도 김홍순 불자, 병원 발전을 위해 5천만 원 쾌척

지난 4월 2일 불교 신도 김홍순 불자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5천만 원을 쾌척했다. 이날 전달식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 확장 오픈식 초대를 통해 이뤄졌으며,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스님과 이진호 의료원장, 조성민 병원장 등 참석한 가운데 전달됐다. 김홍순 불자는 이날 기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자비 나눔을 실천하게 됐으며, 불교종립병원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내역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부자	기부액(원)	100만원 미만 기부자												
김홍순	50,000,000	강도림	김가영	김소원	김태숙	박미순	박현숙	송두현	오종현	이소영	이지희	정승희	조희남	평일남
보광스님	10,000,000	강석진	김강욱	김승희	김태은	박미형	박현영	송해교	오진숙	이수경	이진호	정승택	주상태	하정희
		강순엽	김강호	김승희	김태호	박상은	박현주	송효진	왕지혜	이수라	이혜원	정운영	주은명	하현자
돈관스님	10,000,000	강여량	김강희	김수익	김필자	박서연	박혜진	신경민	유갑소	이수림	이향년	정원기	지영한	한국삼
향적스님	10,000,000	강연주	김광기	김수정	김하겸	박석원	박효민	신경수	유묘상	이수철	이항미	정윤정	진경애	장재만
		강윤성	김국현	김순만	김현정	박선옥	박효진	신경희	유상일	이순호	이현경	정윤정	진영숙	한영우
(재)아산사회복지재단	4,300,960	강은경	김금희	김순애	김해인	박성림	박희옥	신석재	유소라	이슬기	이현정	정은경	차욱련	한명희
		강지영	김남희	김시연	김해정	박성미	방광환	신용현	유은정	이승욱	이현희	정이선	채기수	한미정
(재)아름다운동행	3,594,240	강화실	김달용	김영미	김현수	박성원	방선호	신윤주	유정임	이승은	이형경	정인원	채봉희	한상권
		경 기	김덕래	김영미	김현서	박성윤	방세준	신은재	유정화	이승철	이형철	정재우	채석래	한송이
(재)아름다운동행	3,594,240	모금회	김덕희	김영복	박성주	방정자	신은정	유주형	이주형	이호준	이현열	정재원	최경아	한영희
		경천에	김도연	김영옥	김형관	박세진	배삼만	신은희	유지영	이영일	이호정	정지유	최동준	한우식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3,000,000	어테크	김도현	김영진	김혜경	박세환	배서영	신주영	유창국	이영찬	인승순	정지찬	최명렬	한용윤
		고기원	김도현	김영한	김혜미	박송이	배수현	신현모	유창선	이완재	임근일	정진희	최문전	한윤희
홍련암	2,000,000	고기환	김동일	김영혜	김혜진	박수연	배주현	신희정	유형주	이용찬	임선희	정한숙	최문희	한윤희
		고유삼	김용식	김호배	김호준	박수진	배효상	안가혜	윤복연	이윤경	임성희	정혁수	한은숙	한은숙
김상진	2,000,000	고채연	김무종	김용숙	김효주	박수혁	백용애	안성희	윤수임	이원상	임윤정	정혜은	최봉용	한정선
		곽경아	김문식	김율리	김희진	박수희	백윤정	안숙자	윤재문	이원호	임종대	정호근	최상돈	한정훈
조재로	2,000,000	곽범석	김미경	김은미	나경란	박숙희	변재욱	안연소	윤 태	이유나	임춘화	정휘수	최상식	한지원
		곽성열	김미송	김은아	나 현	박순자	변지석	안영길	윤해진	이윤상	자비나	조경애	최수연	허분
재단법인 푸르메	1,788,100	구복심	김미숙	김은애	남기태	박신애	서경진	안종희	윤희영	이은경	남세상	조계종	최수진	허순례
		구순점	김미영	김은정	남현미	박왕임	서영문	안지은	이경미	이은주	장민욱	지재단	최완우	허희진
이명규	1,500,000	국충돈	김미영	김은정	남현숙	박규경	서영란	안타혁	이경미	이재경	장순자	조나연	최유만	현미숙
		권동현	김미진	김은희	남현숙	박은경	서영란	안타혁	이경미	이재경	장순자	조나연	최유만	현미숙
한국실명예방재단	1,353,120	권기혁	김민선	김용중	남희련	박재경	서 준	양경수	이광훈	이재우	장유민	조문희	최윤호	홍민재
		권기현	김민성	김이수	노미경	박재숙	서희주	양경숙	이구슬	이재환	장윤정	조민주	최은희	홍민희
주순호	1,300,000	권도윤	김민철	김민수	도경원	박재윤	석상원	양유리	이귀숙	이정백	장인규	조상은	최인영	홍숙자
		권동현	김민희	김재은	류대만	박재희	성낙진	양희경	이규옥	이정우	장태영	조성민	최진주	홍승욱
무구스님	1,200,000	권두경	김병희	김정미	류은호	박정미	소낙진	양희경	이나현	이정하	장태영	조승호	최정민	홍은기
		권범선	김병철	김정민	모성은	박정화	소은숙	여민영	이동욱	이정화	장호근	조영호	최정민	홍은수
최종윤	1,000,000	권병철	김보영	김정숙	모정은	박충현	소행연	여민혁	이명종	이정희	전진영	조유미	최정숙	홍은희
		권삼석	김삼기	김종갑	문미길	박주연	손귀덕	여현남	이문정	이종득	정경숙	조유미	최종기	홍이내
최종윤	1,000,000	권선애	김상규	김주현	문병모	박 준	손기현	여취경	이미영	이종철	정경은	조유영	최종기	홍이내
		권성욱	김선경	김지혜	문상희	박준재	손민정	염윤정	이미희	이주은	정경은	조정숙	최진영	홍호진
이애영	1,000,000	권수민	김선주	김지원	민상연	박지현	손민표	염은영	이민우	이준길	정경철	조정아	최진호	황보수
		권영애	김선희	김진규	박계숙	박진아	손정은	염주홍	이병기	이지영	정길석	조현선	최창익	황윤자
(사)생명나눔실천본부	1,000,000	권오형	김성경	김진우	박 관	박진우	손정화	오미정	이성영	이지원	정미라	조혜원	최해용	황인봉
		권일진	김성권	김차기	박대희	박창훈	손주연	오민주	이상익	이지원	정미라	조혜원	최해용	황정희
법진스님	1,000,000	권태용	김성원	김창기	박동우	박철용	손주영	오성은	이상현	이지윤	정미선	조혜정	최현준	
		권희재	김세민	김치선	박동진	박현미	손효정	오은경	이선아	이지은	정석화	조해진	최희정	
		금나래	김세희	김태선	박명조	박현숙	손희진	오익진	이선희	이지혜	정선희	조효순	추경희	

본 명단은 2018월 2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기부해주신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홍보팀 031-961-575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 ~ 2017. 12. 31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 동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광스님	552,727,100	국민은행	75,000,000	동국대경주병원불교회	26,900,000	이종훈(동탄기업)	10,000,000
법주스님	400,000,000	혜선스님	60,000,000	증휘스님	25,600,000	현진스님	10,000,000
대능스님	100,000,000	동국대일산병원법당	35,448,974	신철스님	20,000,000	종표스님	10,000,000
조영길	100,000,000	영진스님	30,000,000	은성스님	20,000,000	김두선	10,000,000
태원스님	100,000,000	연우책방	30,000,000	(사)생명나눔실천본부	13,189,960		
심우스님	100,000,000	이성민	30,000,000	(주)교보문고	11,639,560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일반 ☐ 불교계 ☐ 교직원 ☐ 동문 (입학년도 : 대학(원) : 전공 :)	☐ 기업/단체 ☐ 기타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		☐ 자택 ☐ 직장
휴대폰번호	유선전화	
이메일	기부 추천인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현물기부(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	)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발전기금위원회 일임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 학교발전기금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 지정기금 (지정)				
기부의견					

남방변
북동방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본당)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	------	--	----------------

정답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해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수집목적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보유기간 : 5년)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20년 만에 일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 이메일 ▶ hongbo@dumc.or.kr / 팩스 ▶ 031•961•5759
- 문의 : 동국대학교의료원 대외협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031•961•5753



Life Care Partner 동국대학교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건강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진료과 전문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지향
- 동서양 의학 접목을 통해 각 개인별로 차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용
- One stop system 건강진단 실시로 당일 건강진단 후 신속한 당일결과 상담(판정) 가능
- 고객이 선택 가능한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 건강검진 후 위험인자나 질병 발견 시 지속적인 사후관리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홍보팀

10326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8 Summer | VOL. 15

“고양시의료기관을 공동목표로 하여 ‘중·고급 의료기관’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문/최민호 관장은 “중·고급 의료기관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풀칠하세요.

절취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본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정밀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엄 속삭검진	다양하고 정밀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짧은 시간에 검사하기 어려운 노약자, 지방거주자 및 편안하고 여유롭게 검사하고자 하는 수검자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생애주기별	예비신랑·신부검진, 청소년검진, 장수검진 등 생애 주기별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31. 961. 7700, 7699, 7698 인터넷 ▶ <http://www.dumc.or.kr/hpc/>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 본 종합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종합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플래티늄 종합검진	프리미엄 종합검진에 뇌혈관질환까지 확인할 수 있는 VVIP를 위한 가장 최고급 종합검진입니다. 주요 암질환과 각종 위험인자를 광범위하게 정밀진단하는 최상의 프로그램입니다
특 화 종합검진	가족력, 이력 등에 따른 특화된 검진으로 개개인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54. 770. 1430~3 인터넷 ▶ <http://www.dumc.or.kr/gj>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문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031-961-7955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경주한의원 054-770-1400~1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031-710-3712/378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Dongguk for you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발행인 이진호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18년 6월 1일 (통권 15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대표전화 1577 · 7000

홈페이지 www.dumc.or.kr

기획·편집·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